



2025년 3월 첫째주일

“여호와와 나의 목자(V)”

시편 23:1-6

찬양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1.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죽음의 위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며, 그럼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확신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신 31:8)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터치를 경험해 보셨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